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신라의 황룡사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과거 불국토사상
과거 불국토사상은 붓다가 태어난 인도 뿐만 아니라 이곳 신라도 과거부터 붓다와 인연이 있는 국토였다는 것이다. 불교의 『아함경』 『대본경』에는 과거 7불사상의 원형이 투영되어 있다. “비구들이여! 지금부터 91겁 전에 비바시 여래지진(如來至眞)이라는 부처님이 있어 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31겁 전에 시기 여래지진이라는 부처님이 있어 이 세상에 나오셨다. 비구들이여! 또 그 다음에는 저 31겁 중에 비사바 여래지진이라는 부처님이 있어 세상에 나오셨다. 비구들이여! 또 그 다음에는 현재의 현겁 중에 구루(壽)이라는 부처님과 구나함이라는 부처님과 가섭이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리고 나도 지금 이 현겁 중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 여기서 비바시-시기-비사바[부]-구루[壽]-구나함-가섭-석가모니불로 이어지는 과거 7불은 법신-보신-화신 또는 자성신-수용신-변화신으로 구분되는 삼신(三身) 사상과 함께 대승불교의 불신관(佛身觀)으로 전개되었다.

의 시선은 역사적 존재이자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불(현재불)의 고국인 인도에 앞서 과거 여섯 번째 부처인 가섭불이 이곳에 와서 설법을 하였던 자리라는 것이다. 즉 석가모니불 이전의 부처인 가섭불이 신라에 와서 불연(佛緣)을 맺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도보다 먼저 신라에는 불교가 이미 전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불교적 통찰력과 예지력 위에서 신라 본위(本位, 중심)로 구축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붓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이다. 인도에 붓다가 있었다면 신라에도 붓다가 있을 수 있었다. 인도의 고타마 싯다르타가 출가 수행하여 얻은 깨달음이 가장 완벽하여 그는 석가불로 탈바꿈한 뒤 종래의 ‘붓다’ 개념을 ‘독점’ 하였을 뿐이다. 연기법(緣起法)이란 붓다가 이 세상에 오던 것이 없던 이미 있던 것이며, 붓다는 연기법을 발견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설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진흥왕과 황룡사 장육존상
(삼국유사)에서 ‘황룡사’를 조목명으로 하는 곳은 3곳이며 ‘가섭불 연좌석’까지 치면 4곳에 이른다.

황룡사 법당 장육존상 존호 가섭불
황룡사 조목...진흥·진평왕 등 등장
진흥왕의 역할 모델은 아쇼카왕
토착신앙 융합·정치대립 극복

고구려와 백제와 가야가 왕실의 적극적 지원에 의해 불교를 공인한 것과 달리 신라는 법흥왕의 출가와 이차돈의 순교라는 ‘신략(神略)에 의해 불교를 공인하였다. 때문에 6부족들이 미어은 고구신앙과 왕실이 지지한 불교신앙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았다. 병부의 설치와 율령의 반포 및 공복의 제정을 꾀했던 법흥왕과 왕비는 만년에 몸소 출가까지 하였다. 그를 이은 진흥왕과 왕비 역시 만년에 출가를 하였지만 재위 시절에는 고구신앙과 불교신앙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진흥왕은 미소녀(美少女) 중심의 원화(源花)제를 시행했다가 폐지한 뒤 다시 미소년(美少年) 중심의 풍월도(風月道)를 시행하였다. 풍월도 역시 고구신앙과 불교신앙의 접점을 모색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어 안장(安藏)법사를 대서성(大書省)에 임명(550)하였으며, 고구려에서 온 혜량(惠亮)을 승(僧)통을 시켜 불교를 통관(551)하게 하였다. 혜량은 신라에서 처음으로 백고좌법회와 팔관회를 거행하였다.

이차돈의 순교와 법흥왕의 출가로 최초의 절인 ‘대왕흥륜사’가 창사되었다. 하지만 그곳은 신라의 성황당이었던 천경림(天鏡林)을 배어내고 불교의 사찰을 지은 곳이었다. 때문에 진흥왕에게는 보다 본격적인 창사가 필요하였다. 그는 먼저 월성 동쪽, 용궁 남쪽에 궁궐(紫宮)을 지으려 하였다. 황룡이 그 터에 나타나자 왕이 의아하게 여겨 다시 불사를 세우기(553)로 하고 17년 만에 공사를 마치고(569) 황룡사라 하였다. 재위 26(565)년에는 진나라 사신 유

왕부터 서민까지 신라인 총동원 창건



신라의 국찰이었던 황룡사의 9층목탑터. 현재 옛 모습을 되살리기 위한 발굴과 복원 작업이 한창이다.

사(劉思)와 승 명관(明觀)이 경론 1,700여권을 가지고 왔다. 뒤이어 기원사(祇園寺)와 실제사(實濟寺)도 창사하였다. 때마침 남쪽 바다로부터 큰 배 한 척이 와서 하곡현(율주)의 사포(谷浦)에 정박하였다. 배를 조사해 보니 첩문(牒文)이 있었다. 거기에는 “인도 아육왕이 황철 5만 7천 근과 황금 3만 톤을 모아 장차 석가삼존상을 주조하려다 이루지 못하고 배에 실어 바다에 띄우면서 축원하기를 ‘부디 인연 있는 나라에 가서 장육의 존귀한 모습을 이루소서’라 하였다”고 써여 있었다. 아울러 부처상 하나와 보살상 둘의 견본도 함께 실려 있었다.

고을의 관리가 실상을 글로 써서 왕에게 보고하자 왕이 칙사를 보내 그 고을의 성 동쪽에 놓고 밝은 땅을 골라 동축사(東竺寺)를 세우고 세 불상을 모셔 안치했다. 금과 철은 서울로 실어가 태건 6년 갑오(574)년 3월에 장육존상(丈六尊像)의 주조가 단번에 이루어졌다. 무게가 3만 5,007근으로 황금이 1만 198 톤이 들었고, 두 보살은 철 1만 2천근, 황금 1만 136 톤이 들었다. 황룡사에 모시자 이듬해 불상에서는 눈물이 발꿈치까지 흘러 땅이 한 자나 젖었으니 대왕이 세상을 떠날 징조였다. 일연은 이 사실이 진평왕 시대의 기록이라는 일부 주장을 틀렸다고 하였다. 어떤 책에서는 인도의 전륜성왕이자 진흥왕의 역할 모델이었던 아육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아육왕이 인도 대항화국(大香華國)에서 석존이 입멸한 뒤 1백 년만에 태어났다. 그는 석존계 공양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금과 철을 조금 모아 세 번이나 불상을 주조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때 왕의 태자가 홀로 이 일에 참여하지 않자 왕이 태자를 힐책하였다. 태자가 말씀드리기를 ‘혼자 힘으로 될 일이 아니므로 일찍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사옵나니’라고 하였다. 왕이 그 말을 옮겨 여겨 즉시 그것을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워 남부주제 16개의 큰 나라와 5백의 중간 크기의 나라와 1만의 작은 나라, 8만이나 되는 촌락을 두루 돌아다니지 아니한 곳이 없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에 신라국에 도착하자 진흥왕이 문인림(文仍林)에서 주조하여 불상을 완성하니 상호가 다 갖추어졌다. 이

로써 아육왕의 근심이 없어지게[無憂] 되었다.” 신라에서 장육존상이 주조됨으로써 저 8백 여년 전 인도의 아쇼카왕 이름처럼 진흥왕이 ‘근심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흥왕의 이미지가 그의 역할 모델이었던 아쇼카왕의 이미지와 겹쳐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진흥왕은 왕자 이름도 아쇼카왕을 따라 사륜(金輪, 舍輪), 동륜(銅輪)으로 지었다.

자장과 황룡사 구층탑
신라의 국찰이었던 황룡사 관련 조목에는 진흥왕 뿐만 아니라 진평왕과 선덕여왕도 등장하고 있다. 황룡사가 국가의 대찰이었던만큼 이 절과 관련된 왕들과 고승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자장은 황룡사와 가장 깊은 인연을 가진 고승이었다. 1) 자장은 선덕여왕 때 당나라로 유학하여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감응하여 비결을 받았다. 문수보살이 부촉하여 말하기를 “너희 나라의 황룡사는 바로 석가와 가섭불이 강연하시던 곳으로 연좌석이 아직도 거기에 있다. 이 때문에 인도의 아육왕이 황철을 조금 모아 바다에 띄워서 1천 3백여 년이 지난 뒤에 그것이 너희 나라에 닿아 불상이 이루어지고 그 절에 모시게 되었으니 대개 부처님의 위엄과 인연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고 했다. 불상이 완성된 뒤에 동축사의 삼존 불상도 이 절로 옮겨 모셨다.

문수보살은 또 말하였다. 2) “너희 나라 왕은 바로 인도의 크샤트리아 종족의 왕족으로서 이미 부처님의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인연이 있으므로 동축의 오랑캐나 공공(共工, 야만족)과는 다르다. 그러나 산천이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격이 거칠고 사나우며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어서 이따금 천신 이 화를 내린다. 하지만 다문비구가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들이 매우 편안하고 모든 백성들도 평화롭다”고 하였다. 말을 마치자 문수보살이 보이지 않자 자장은 이것이 바로 보살의 화신임을 알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물러나왔다. 또 3) 중국 태화지(太和池) 옆을 지나는데 홀연히 신인(神人)이 나와 물기를 “어찌하여 이곳에 왔소?”라고 하였다. 자장이 대답하기를 “깨달음을 구하려고 왔습니다”라

고 하자 신인이 그에게 질하며 다시 물기를 “그대의 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소?”라고 하였다. 자장이 말하기를 “저의 나라는 북쪽으로는 말갈에 닿아 있으며 남쪽으로는 왜나라 사람들과 접해 있고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가 번갈아 국경을 침범하여 이웃나라 적들이 함부로 날뛰니 이것이 백성들의 걱정입니다”라고 하였다. 신인이 말하기를 “그대의 나라는 여자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덕은 있으나 위엄이 없소. 그래서 이웃 나라가 침략을 도모하는 것이니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오”라고 하였다.

자장이 물기를 4) “본국으로 돌아가 무엇을 해야 이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신인이 말하기를 “황룡사의 불법을 호호하는 용이 나의 만이들로 범천왕의 명령을 받고 가서 이 절을 보호하고 있소. 본국에 돌아가 절 안에 9층 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들은 항복할 것이고 9환(鑊)이 와서 조공할 것이며 왕위 길이 편안할 것이오. 탑을 세운 뒤에는 팔관회를 열고 죄인들을 용서하여 석방하여 주면 외국의 적들이 침범할 수 없을 것이오. 또 나를 위해 서울 부근 지방의 남쪽 언덕에 절 한 채를 지어 내 복을 빌면 나 역시 그 은덕에 보답하겠소”라고 말을 마치자 드디어 옥을 받들어 바치고 홀연히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자장이 만난 문수보살의 이야기에서 1) 아쇼카왕과 진흥왕의 재위는 약 8백 여년의 거리가 있을 뿐인데도 1천 3백 여년이라고 한 것은 시대상으로 따지면 맞지 않다. 1), 2)의 문수보살과 3)의 태화지에서 만난 신인이 같은 인물인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4) 신라의 국가 대찰 황룡사 창건과정과 구층탑 조성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찰의 창사에 위로는 불보살을 비롯하여 왕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신라인들이 총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흥왕의 불교 공인과 진흥왕의 불교 흥법과 영토 확장 이래 신라는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이 문예부흥의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대찰인 황룡사의 창사를 도모하였다. 진흥왕은 이 국찰의 창사에 저 인도와 중국 및 주변의 여러 나라를 통하여 동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황룡사 창건을 통하여 대외적으로는 신라문화의 우수성을 만천하에 공표할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불교의 통합 원리에 기초하여 토착신앙을 융합하고 있으며, 정치 집단 사이의 대립들을 극복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황룡사 창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재래신앙과 불교신앙의 갈등을 해소하는 주역이 ‘다문비구’였다. 이는 절과 안팎과 자장과 같은 선지식들이 주역이었다는 사실이다. 자장이 만난 오대산의 문수보살과 중국 태화지의 신인 및 강원도 갈반사의 노인 등은 모두 불교와 재래신앙의 화해와 통합을 상징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분단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안팎과 자장과 같이 통효한 다문비구들을 학습고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일까?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권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해), (민족사, 2005; 2007).
고영성, 『불교적 인간』(신아사, 2010).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 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참회문

☎ 031-534-3373

지혜와 공덕, 깨달음 성취하는 생산적인 도道!

불교TV 방송강의중

티빙정도와 유심정도를 포용하는 『일심정도 연불수행』
정목스님 저음 변형 신국판 | 컬러 | 232쪽 13,000원

우리 시대의 율호 정목스님이 들려주는 정정치의 깨달음 환경과 의식을 창조하는, 체험으로 증명되는 마음의 과학!

원호 대사의 일심정도 연불수행은 독자적인 정토사상이요 순수한 한국불교이며, 중생을 구제하는 가장 대중적인 수행법이다. 연불삼매와 관불삼매를 성취한 정목스님은 누구든지 연불수행을 통해 안심을 얻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대승불교의 신행체계를 확립했다.

양산 정도원: T.055-375-5844, 아미타파 (cafe.daum.net/amtapa)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a5@daum.ne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지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지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지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지죽염 230g	78,5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지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6-823-0483**
입금: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자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ly.co.kr**